PR Focus

국내외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산 통신장비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련 업체들이 수요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R&D투자 등으로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섰으며, 과감하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홈네트워크시장을 주도할 통신장비업체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로 불황을 극복하라

해피컴, 국내 최초 가입자계 통합형 회선분배장치 'Access-256E' 호평

고속인터넷 전용 회선장비 등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 해피컴(대표 강광복)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입자계 통합형 회선분배장치를 개발, 출시해 관련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Access-256E'로 이름 붙인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복잡한 망구성을 단순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망운용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 회선분배장치는 최대 128개의 DS1E 신호와 6개의 DS3 또는 2개의 STM-1 신호가 동시에 접속되어 DSO 신호 단위로 상호회신 연결된다. 구성단위 모듈은 운용 중에도 증설과 실·탈장이 가능하고 외부동기, 수신동기, 내부동기 등의 클럭동기 기능을 지원한다.

해피컴은 그간 정보통신망 구축의 공로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달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 180억원의 매출을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코스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매출 500억대의 통신장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 해피컴 강광복 대표 | 향후 통신시장은 방송·음성·데이터가 통합된 광전송장치를 이용한 홈네트워크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향후의 통신시장 변화에 대비해 멀티서비스 광전송장치, 무선데이터 시스템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무선응용제품을 근간으로 연매출 500억원 규모의 통신장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엠비엔파트너스, 96채널 IP기반 ADSL 'IRT-900' 개발

광전송장비 생산 전문기업인 엠비엔파트너스(대표 민경국)가 최근 96채널 IP기반 ADSL 집적장치인 IRT-900을 개발,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SNMP기반의 효율적인 망관리 시스템과 트래픽집선을 위한 Stacking을 제공하고 하나의 IP를 통해 관리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EMS에서 Stacking된 관리 및 제어 데이터를 Tree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 기업의 IP-ADSL 시스템은 최근 초고속망 솔루션에서 각광받고 있는 DSL기술을 활용하였고, IP기반의 이더넷환경과 쉽게 접속할 수 있어 ATM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올 6월 일룡텔레시스에서 사명을 변경한 엠비엔파트너스는 새로운 각오로 멀티미디어 전문장비업체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 엠비엔파트너스 민경국 대표 | 국내외 통신장비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또 광전송장비 개발에 적극적인 R&D투자를 감행해 단기적인 불황 극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간 내수위주의 매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수출기업으로 변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